

치매예방부터 치매환자 관리까지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환 준비 착수... 9월까지 리모델링·증축 공사

전주시가 시민들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등을 책임질 치매안심센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달 중 시설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기존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치매안심센터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기본 공공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치매 종합관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중화산동에서 별도로 운영해온 치매상담센터를 전주시보건소 내로 이전해 치매안심센터로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보건소 건물의 지상 1~3층 리모델링, 5층 증축공사를 추진, 총 720㎡ 규모의 공간을 갖출 계획이다.

향후 이곳에서 치매약화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인지 강화·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경증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치매환자쉼터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해 휴식을 취하며 다른 치매환자 및 가족과 교류하는 치매가족카페 △치매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검진실과 치매상담실 등의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팀을 새롭게 조직 △치매인지 개선 사업 △치매파트너 교육 사업 △치매예방 관리 사업 △지역사회 인적자원 양



‘풍년 기원하며 밀밭 밟아오’

7일 전주시 성덕동 우리밀 재배단지에서 어린이들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직원들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며 밀밭 밟기 체험을 하고 있다. 밟기 체험은 겨우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생긴 땅속 얼음으로 들뜨는 밀 뿌리를 밟아 땅에 밀착시키는 것으로 밀의 생육을 돕는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보건소는 치매환자 심층방지를 위한 치매노인 지원 사전등록제 사업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제공한다.

이밖에 치매유관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지역사회치매협의체를 운영,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돌봄 사업 관리 사업 △지역사회 인적자원 양

가 필요한 환자를 선정 후 맞춤형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치매사례관리 위원회도 별도 운영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허브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헤어임 가족교실’을 치매안심센터(중화산동 소재) 교육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가족들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지속적인 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전주시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동주인센터와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기본 교육·성희롱 예방 및 구직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교육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근로조건, 복무규정 등의 직무 교육 △동용성을 통해 바라본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일자리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 참석자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서 지원한 전문강사인 이동진 이레네메모리얼가족상담센터장으로부터 △직장 적응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법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직 역량 강화 비법을 전수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에게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일반형 일자리 76명과 복지 일자리(참여형) 152명, 맞춤형 일자리 23명 등 장애 유형별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청 로비와 완산·덕진구청에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으로 ‘꿈앤커피’와 ‘I got everything 카페’가 각각 설치돼 중증장애인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맞춤형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동시에 유치하는데 성공,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이 있듯, 장애는 그냥 그 사람의 한 가지 특성일 뿐이라고 인식하면 좋겠다”면서 “현재 참여하는 일자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북은행, ‘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동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정부가 시행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부모 10시 출근제’에 동참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자녀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한달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상 직원들은 오전 10시까지 출근해 근무시간이 단축되지만 그로 인해 임금이나 승진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북은행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학교 생활을 볼봐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돼 더욱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상곤 부총리, 전북교육가족들과 ‘소통’

어린이 동화작가 격려·‘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강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 전북교육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전북교육청에 도착한 김 부총리는 김승환 교육감과 약 15분간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김 부총리와 김 교육감은 1층 북카페로 이동해 어린이 동화작가들을 만나 격려했다. 어린이 동화작가들은 번안초등학교 동화부교 학생들로, 전교생이 직접 쓰고 그린 동화책을 매년 한 권씩 발간해오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자신들이 만든 동화책에 작가 사인을 한 뒤 부총리에게 선물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2층 강당에서 전

북교육청 교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50여분간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교육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어느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교육 목표라고 소개한 김 부총리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쟁 교육’을 협력 교육으로, ‘관료적 국가통제’를 ‘현장의 자율적 실천 지원’으로, ‘교육 양극화 심화’를 ‘희망사다리 복원’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협력해 교육과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 교육가족들의 바람을 수렴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했다”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 6대 교육정책을 소개했다.

/이상민 기자

덕진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

덕진구는 전북동 959-4번지 등 657필지(96,431㎡) 일원에 대해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기에 앞서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토지소유자 및 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경구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마쳤다.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여 토지현황 조사와 GPS 및 첨단 측량 장비 등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순서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